



라이브 클럽 '존 앤 마리아'에서 진행된 블루스 밴드 '마인드, 바디&소울'의 공연.



클럽을 운영하는 장혜란·박성언씨 부부.

“그저 365일 음악 있는 라이브 클럽 만들고파”

광주 인디 무대 계보 잇는 '존 앤 마리아' 박성언·장혜란 부부

카페·즉석 무대·전문 공연장 갖춰...쇼케이스 등 무대 4인조 블루스 밴드 '마인드...' 둘째·넷째 토요일 공연 "수익 생각하고 운영하면 탈난다" 망하면서 얻은 교훈

'네버랜드'(옛 네버 마인드), '부드러운 직선', '보헤미안', '살롱 드 재즈' 등 광주의 작은 공연장들은 지역 음악인과 관객에게 보물 같은 공간이다. 꾸준히 설 수 있는 무대가 있음에 이들 장소는 인디 뮤지션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후원자가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광주전변에 문을 연 '존 앤 마리아'(수기동 106-3)는 지역 문화공간의 계보를 잇는 라이브 클럽이다. 별다른 홍보가 없는데도 지난 3개월 여 동안 이곳은 지역 음악들에게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정기공연을 여는 '존 앤 마리아'에는 여러 뮤지션이 거쳐갔다. 싱어송라이터 이진우가 2집 앨범 쇼케

이스를 가졌고 국악자매 앙상블 소공, 가수 류의남, 그란디 등이 콘서트를 열었다. 14일 오전 '존 앤 마리아'를 운영하는 박성언(40)·장혜란(37) 부부를 만났다. 결혼 11년 차인 이들은 박성언 밴드로 활동하며 연주·작곡·프로듀싱도 하고 있다. 대학 시절 서울서 만나 남편의 고향인 광주에 터를 잡았다. '존 앤 마리아'는 낮에는 카페, 밤에는 공연장이 되는 1층과 대관이 가능한 지하 공연장으로 구성돼 있다. 객석 구분 없이 삼삼오오 테이블에 모여 커피와 술을 마시며 관람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관객이 많지 않은 탓에 지난 크리스마스 파티 때는 관

객들이 건물 밖에서 공연을 보기도 했다. 공연이 주로 이뤄지는 30평(99㎡) 면적의 1층에는 피아노, 신디사이저, 기타, 드럼, 퍼커션, 아코디언 등 악기와 탄테이블이 구비돼 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와 자신의 LP판을 들려줄 수 있느냐 묻길래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윤복희의 오래된 앨범을 들으며 많은 얘기를 나눴죠. 민중가수 김원중씨는 이곳에서 술잔을 나누다가도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곤 합니다. 정해진 스케줄 없이 누구나 원하는 음악을 듣고 연주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클럽입니다." '존 앤 마리아'의 탄생과 함께 첫발을 내디딘 뮤지션도 있다. 4인조 밴드 '마인드, 바디&소울'은 '존 앤 마리아'가 생길 때부터 꾸준히 이곳 무대에 올라 블루스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음악하는 후배들에게 무대를 마련해주고 싶어서 정기 출연을 제안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일정한 출연료를 주고 있죠. 관

객이 들쭉날쭉한데 저 혼자만 자리를 지키더라도 공연은 계속합니다." 박성언씨의 말처럼 '존 앤 마리아'를 찾는 발걸음은 아직 많지 않다. 음악인들 말고는 전변을 지나가다 호기심에 들르는 손님이 대부분이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4년여 간 전남대 후문에서 라이브 클럽 '에비로드'를 운영하다 '망한' 기억이 있다. "클럽은 수익을 생각하고 운영하면 오히려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날 에비로드를 운영하면서 얻은 교훈이라 할까요. 그저 1년 365일 매일 밤 음악이 흘러나오는 라이브 클럽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달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 8시 공연이 있다. 오는 23일에는 '마인드, 바디&소울'이 '블루스의 밤'을 꾸민다. 입장료 1만 원을 내면 음료 한 잔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오전 11시~밤 11시(일요일 휴무). 문의 062-222-171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승현 사진전 '광산 리-컬렉션'

3월3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큐브 미술관

광주시 광산구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기록하는 광산 사진아카이브를 추진 중이다. 그 첫번째로 사진작가 김승현 초대전 '광산 리-컬렉션' 전을 오는 3월3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큐브 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진 전시는 3개 색 선으로 나눠 진행되며 광산구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 '전통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사진작품 50여점을 만날 수 있다. 김승현 작가는 광산구청 복지문화국장, 수안동장,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으며 '김승현의 빛으로 그려가는 자연과 문화' 사진 블로그를 통해 광산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자원, 문화예술 현장



을 대중들과 공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전시 종료 후 사진작품은 광산구에 기증할 예정이며, 향후 광산 예술공유(Art share) 서비스와 연계해 광산구의 문화 콘텐츠를 알리는 기획 전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062-960-368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타악그룹 공존, 현재와 과거의 틈 사이

전통문화관 16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열리는 토요일 상설공연을 연다. 이날 무대에는 '전통타악그룹 공존(사진)'이 올라 '현재와 과거의 어느 비좁은 틈 사이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전통타악그룹 공존'(대표 양도선)은 한국전통의 멋과 현 시대의 대중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어 내고자 2012년 창단한 공연예술단체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이수자들이 모여 전통공연예술의 새로운 창조를 시도하고 있다. 이날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이·전수자 양도선(쟁과리·산반이), 정인구(장구·산님), 강병식(징·베나), 김영신(장·짜와·말뚝이), 서광식(쟁과리·베나)과 남

해안별신굿 전수자 김준호(북·징, 국가무형문화재 제82·라호), 강운진·권순찬(북)·권지선(장구)이 함께 출연한다. 이날 '길놀이(지신밧기)'를 시작으로 남사당놀이 '바나놀이', '덧밧기', '샌님잡이', '삼도사물놀이' 등이 펼쳐진다. 오는 23일은 '국악그룹 나눔' 공연으로 '포 더 리퍼블릭 프로젝트 춘향 X 심청'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료 관람. 문의 062-232-159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쓰임새 많아진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으세요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1일부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문화생활 전용 복지카드 1인당 8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영화, 전시, 스포츠 관람과 도서 및 음반 구입, 체육 단련장 등 다양한 전용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에게 발급된 세대원 카드는 총 18대

이내에서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으로 산 사용이 가능하며 1회당 100원~10만원 까지(연간누적금액 200만원 한도) 현금을 충전해 할인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발급 및 재충전은 11월 30일까지 주민센터나 누리집(www.mnuri.kr)에서 진행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재충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전용 가맹점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062-670-7913.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YMCA 문화센터 봄학기 신청

3월5일~5월 25일 60개 강좌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YMCA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문화센터 봄학기 교육프로그램을 3월 5일부터 5월 25일까지 운영한다. 모두 60여개 강좌로 유아·어린이강좌, 청소년 토요일강좌, 성인예술 취미강좌, 직장인을 위한 화요 야간강좌, 희망미술프로젝트 등 미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했다. 작품을 감상하고 아이들이 예술가와 함께 미술체험을 하는 전시연계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박기정 작가의 만화 '폭탄이', 최호철 만화작가의 '태일이', 강풀 작가의

'26년'을 로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김환기 서양화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좋아하는 풍경을 그리는 시간을 갖는다. 성인예술 취미 강좌는 수채화, 도예, 누드드로키, 인화, 유화, 한지공예, 캘리그래피, 천연비누와 캔들 공예 등이며 야간강좌도 개설돼 있다. 또 사진, 샌드아트메이선, 애니메이션, 수채화 등 청소년 토요일강좌를 개설했으며 또 특수학급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기존회원은 오는 29일부터, 신규회원은 2월 12일부터 전화 및 방문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문의 062-613-7180-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월대보름 맞이 강강술래 16일 용주초교

'평화의 강강술래와 함께 하는 제10회 용봉골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오는 16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용봉동 용주초등학교에서 열린다. 용봉골 정월대보름한마당 행사위원회(위원장 정달성)와 용봉마을공동체(대표 이상길), 생활정치발전소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10년째를 맞는다.

이날 행사는 지신밧기, 흥겨운 풍물판굿, 민속놀이체험, 세시풍속 등으로 진행되며 메인 행사로는 평화를 염원하는 10주년 기념 대동강강술래가 진행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 주민들과 나눌 '대보름 찰밥'은 용봉동 주민들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마련해 그 의미를 더한다. 문의 010-8742-7117. /김미은 기자 mekim@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